

다언어 학습 시스템을 통한
웹 기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동경외국어대학『TUFS 언어모듈』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안은희

(동경외국어대학)

Eun-Hee Ann. 2006. A Study on the Web-Based Korean Language Program in a Multilingual Learning System.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17-2: 157 - 181. This study introduces the principles of the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structure of TUFS Language Modules, a multilingual learning system developed by the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d analyzes the peculiarities and utilities of the Korean Language Program. TUFS Language Modules have been developed for 17 languages, and each module for the 17 languages consists of "Pronunciation Modules", "Dialogue Modules", "Grammar Modules", and "Vocabulary Modules". TUFS Language Modules adopted a cross-lingual functional syllabus for the Dialogue Module which is composed of 40 functions for each of the 17 target languages. The analysis of Korean program in TUFS Language Modul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Korean Language Program in the multilingual learning system induces learners' learning motivation and enables the learners to study Korean from the point of view of contrastive linguistics. Second, the "modular concept" which is the principle of its development maximizes the effect of web-based materials, and allows learners to do autonomous leaning. Third, it makes it possible for learners to participate in active learning by providing learning models on the web.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주제어: 웹 기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web-based Korean language program), 다언어 학습 시스템(multilingual learning system)

1. 들어가기

본고에서는 동경외국어대학에서 개발한 웹 기반 언어 교육 프로그램『TUFS 언어모듈(Language Modules)』¹⁾²⁾의 개발의 실제를 바탕으로 일본 대학의 웹 기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원리 및 구조적 특징을 살피고 발전 방향 및 과제를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어 교육 현장에 컴퓨터를 활용한 언어 교육(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³⁾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교재의 유형, 학습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교육방법론에도 많은 가능성을 시사하게 되었다. 언어 교육에서 컴퓨터의 활용은, 『교수(teaching)』하고자 하는 학습 내용이 담긴 『도구(instrument)』를 통해서 학습자가 『학습(learning)』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학습도구(learning instrument)』로서의 측면과, 교수자와 학습자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 『수업도구(instructional instrument)』로서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⁴⁾ 최근 본격적인 가상 원격수업을 지향하여 개발된 한국어 프로그램 등은 면대면 교실수업(face-to-face classroom)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등 컴퓨터가 『수업도구』로서의 성격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면대면 교실수업에 비해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성에 한계점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수업의 개념이 CAI(Computer-Assisted Instruction), CAL(Computer-Assisted Learning), CMI(Computer-Managed

1) 『TUFS』는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동경외국어대학)』의 약칭.

『TUFS 언어모듈』은 <http://www.coelang.tufts.ac.jp/modules/index.html>로 접속.

2) 본고에서 사용하는 『TUFS 언어모듈』과 관련된 고유 용어들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글쓴이가 처음으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3) 최정순(1998)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언어 교육의 유형을 상호작용의 유형에 따라,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고 개별 학습자의 컴퓨터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 인터넷 전자메일이나 채팅 등을 이용해 학습자 간,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둔 방법 등으로 구분하고, 현재 추세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장점을 살려 인터넷, 특히 웹서비스의 특성을 이용해서 멀티미디어 학습 요소를 제공하고 전자메일이나 채팅, 게시판 등의 기능을 이용해서 상호작용 측면을 강화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고 했다.

4) 최정순(1999) 참조.

Instruction), CDI (Computer-Directed Instruction) 등 다양한 용어들로 존재하는 이유도 사실상 컴퓨터라는 도구가 학습자와 교수자 상호관계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른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컴퓨터를 활용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수업도구』로서의 성격보다 『학습도구』의 성격을 띤 것이 많다고 볼 수 있으며, 바꾸어 말하면 도리어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학습의 다양한 유형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이 컴퓨터를 활용한 학습, 특히 웹 기반 교육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과거에 비해 다양한 웹 기반 한국어 교재의 개발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다양한 학습자들의 수요에 부응하여 목적의식적으로 개발된 다양한 유형의 웹 기반 교재들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본고에서 소개하는 웹 기반 언어 교육 프로그램 『TUFS 언어모듈』은 일본 대학에서 외국어 교육을 목적으로 구축한 17개 언어⁵⁾의 다언어(多言語) 학습 시스템이라는 데 특수성을 가진다. 한국어⁶⁾ 프로그램은 『TUFS 언어모듈』 안에서 다른 16개 언어와 나란히 공통된 틀을 가지고 구축되었다.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일본 내에 본격적인 웹 기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전무하다고도 볼 수 있는 현 시점에서 『TUFS 언어모듈』의 개발의 시도는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 특히 일본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교육의 한 면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TUFS 언어모듈』은 현재 전체상의 개발이 완료된 시점이 아니므로 본고에서는 다른 웹 기반 교재와의 비교 분석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TUFS 언어모듈』이 갖는 고유한 특성 및 장단점을 주로 논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웹 기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 및 과제에 관해 언급해 보기로 하겠다.

-
- 5)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중국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라오스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아라비아어, 터키어, 일본어, 한국어
- 6) 동경외국어대학 학부에서는 언어학적 명칭으로 『朝鮮語』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어로서의 명칭이며, 한국어로서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2. 웹 기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쟁점

2.1 웹 기반 한국어 교재 개발의 주안점

『TUFS 언어모듈』의 논의에 앞서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웹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재고해 보기로 하겠다.

웹 기반 한국어 교육의 문제를 다룬 연구로서는 지현숙·이효정(1999), 지현숙(2001), 박건숙(2003), 최정순(2003), 방성원(2005) 등이 있다.

지현숙(2001)은 웹 기반 한국어 교재 개발의 쟁점으로 사용 환경의 수준, 단선적 구조와 복선적 구조⁷⁾, 읽기·듣기·쓰기·말하기 4기능의 안배, 멀티미디어 자료의 활용, 정규·비정규과정의 운영, 가상교육과 면대면 교육 간의 관계 등 6가지를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검토하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이론적 논의보다는 실제 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많은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이 개진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박건숙(2003)은 한국어 교육 사이트의 비교 분석의 기준으로 목적과 대상을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구성 체계, 문화 교육의 측면, 교과 구성 및 단원 구성, 보조 학습 기능 등의 4가지를 들어 비교,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재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방성원(2005)은 한국어 교육 사이트의 비교 분석의 검토 영역을 크게 교육 내용, 교수 학습 활동, 웹 기반 특성, 사용자 환경 등의 4 부문으로 나누고, 각각의 분석 기준을 상세히 제시하여 비교하였다.⁸⁾

7) 단선 구조와 복선 구조의 문제는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구조가 산만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한국어학습으로 유도할 수 있겠는가에 관한 많은 토론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최정순(2000)을 참조한 논의.

8) (1) 교육 내용: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언어 기능이 고르게 학습되는가/발음, 어휘, 문법 학습이 이루어지는가/한국 문화 교육을 반영하고 있는가
 (2) 교수 학습 활동: 학습 목표가 제시되었는가/자기 주도적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학습을 지원하는 장치 또는 안내자가 있는가/학습 내용에 대한 평가 및 결과를 제공하고 있는가
 (3) 웹 기반 특성: 종이 교재와 차별성이 있는가/멀티미디어 요소를 활용하고 있는

선행 연구에서의 논의된 바와 같이 웹 기반 한국어 교재 개발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개발 시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웹 기반 교재는 입체적인 구성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현숙(2001)에서 언급한 단선적 구조와 복선적 구조의 문제와도 관련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학습 내용이 학습자에 전달되는 방식에 따라 학습의 효과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교수요목, 학습 단원이 아무리 훌륭하게 설계된 학습 내용이라도 웹을 기반으로 구현되었을 때 적절한 구조화에 실패한다면 학습자들이 자율적인 학습을 구성하는 데 도리어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기존 연구의 논의는 웹 기반 교육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이론적인 논의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학습 내용이 실제로 웹 상에서 어떻게 구조화되어 어떠한 방식으로 학습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2.2 기존 웹 기반 교재와 『TUFS 언어모듈』

『TUFS 언어모듈』은 현재 개발이 완료된 시점이 아니므로 다른 웹 기반 교재와의 전체상의 비교 분석이 용이하지는 않으나, 한국에서 개발, 운영 중인 기존의 웹 기반 교육 프로그램과의 간단한 비교를 통해 『TUFS 언어모듈』의 특징적인 점이라 생각되는 것을 간략히 언급해 보기로 하겠다.

가/하이퍼텍스트, 하이퍼미디어 속성을 활용하고 있는가

(4) 사용자 환경: 어떤 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가/해외의 인터넷 환경, 컴퓨터 수준을 고려하였는가

<표 1> 기존 웹 기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⁹⁾

| 프로그램 | 학습대상(제공 언어) | 내용 구성의 특징 |
|--------------------------|------------------------------------|--|
| KOSNET (국제교육진흥원) | 재외동포 및 외국인 초급 학습자(영어/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 | 듣기-연습-연습문제 애니메이션 구성 녹음 기능, 자료 출력 기능 Q&A 게시판 |
| Novice Korean (서강대학교) | 재외동포 및 외국인 초급, 중급 학습자(영어) | 학습목표-핵심 표현-듣기-읽기-문법-어휘-연습문제(회화, 분석, 번역, 연습), 게임 등 Ask to 이메일 질문 |
| Teen Korean (재외동포재단) | 재외동포 10대 청소년 학습자 (영어) | 회화-듣기-단어-표현-게임-과제(쓰기, 작문), 퀴즈 등 애니메이션, 노래 녹음 기능, 자료 출력 기능 |
| Click Korean (서울대학교) | 영어권 초급 학습자 (영어) | 도입-어휘-회화-문법-표현-읽기-문화, 삽화, 사진 등 자료 출력 기능 |

먼저 학습 대상 및 목적을 살펴보면, 상기 제시한 타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TUFS 언어모듈』은 학습 대상이 『일본어 화자 대학생¹⁰⁾』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학습 단계는 초급으로 『1학년 전공, 혹은 부전공 학생이 1학기 수업을 마친 직후의 단계』로 상정하였다. 제공 언어는 학습 대상에 맞추어 『일본어』로 되어 있다. 기존의 다른 교육 프로그램들이 영어권에 편중되어 있는데 비해, 일어권 학습자를 위해 해당 언어권 자체에서 개발한 본격적인 웹 기반 교육 프로그램의 시도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타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TUFS 언어모듈』은 한국어 교육만을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

9) 각각의 웹 주소는 <http://www.kosnet.go.kr>, <http://korean.sogang.ac.kr>,

<http://www.teenkorean.com>, <http://www.language.snu.ac.kr>

내용 구성의 특징은 초급 단계를 중심으로 간략히 적었다. 추후 『TUFS 언어모듈』이 완료한 시점에서 타 프로그램과의 더욱 상세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타 프로그램에 관한 비교분석은 박건숙(2003), 방성원(2005), 최은규 · 장은아 · 남수경 · 채숙희(2006) 등 참조.

10) 여기서 『일본어 화자』라 함은, 일본어 모어화자 이외에도 일본어가 가능한 유학생 등도 포함한 것이다. 영어 모듈은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니라 다언어 교육을 목적으로 개발된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개발 원리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학습 내용 구성상의 특징을 보면, 『TUFS 언어모듈』은 전체적으로 발음, 회화, 문법, 어휘의 4부문으로 크게 나뉘어 있으며, 회화 부문은 기능 교수 요목의 관점에서 작성된 40개의 기능 표현으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언어의 4기능이 학습 모델로서 웹 상에 그대로 구조화되어 있다. 최근 여러 웹 기반 프로그램들이 웹 교재의 취약점인 말하기, 쓰기 연습의 보완책으로 녹음 기능, 쓰기 기능 등을 추가하고 있는데, 『TUFS 언어모듈』도 녹음 및 재생 기능을 갖추고 쓰기 연습 문제 등이 제시된다. 또한 다른 프로그램들은 회화장면을 애니메이션, 그림 등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TUFS 언어모듈』은 직접 사람이 출연하여 회화하는 동영상 을 제작하여 제공한다.

다음으로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성의 관점에서 보면, 질문 게시판 등을 운영하는 등 학습자 간의 교류에도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 중인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TUFS 언어모듈』은 아직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보완책으로 현재 『TUFS e-learning system』이라는 로그인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학습자 관리 및 학습 진척도 평가 시스템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 밖의 사항을 살펴보면, 현재 다른 프로그램들 중 학습 내용의 출력 인쇄가 가능하거나, 다운로드 자료를 제공하는 곳들이 있는데, 『TUFS 언어모듈』은 현재 그러한 기능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다른 프로그램들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흥미를 끌고 있는 데 반해, 『TUFS 언어모듈』은 문화면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보완책으로 2005년도부터 홈페이지에 ‘언어문화 포털사이트(portal site)』를 제공하고 있다. 『TUFS 언어모듈』은 언어 교육 그 자체에 중점을 둔 언어 학습 전문 시스템을 지향하여 개발한 것이긴 하나, 언어 습득과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을 고려한다면 언어모듈 안에서도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해 자연스럽게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학습 욕구를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다음에서는 『TUFS 언어모듈』의 개발의 실제를 바탕으로 개발 원리 및 학습 내용의 구조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3. 『TUFS 언어モ듈』의 개발의 실제

3.1 『TUFS 언어모듈』의 개발 원리¹¹⁾

『TUFS 언어모듈』의 개발 배경을 살펴보면, 일본 문부과학성의 『21세기 COE(Center of Excellence) 프로그램』¹²⁾이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동경외국어대학에서 『언어 운용을 기반으로 하는 언어정보학 거점(Center of Usage-Based Linguistic Informatics, 言語運用を基盤とする言語情報學據點)』의 형성을 목표로 개발된 것이다.¹³⁾ 『TUFS 언어모듈』은 기본적으로 대학에서의 외국어 교육을 상정하여 개발되었으나, 웹 상에 무료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도 자유로이 접할 수 있다. 『TUFS 언어모듈』의 개발 원리의 특징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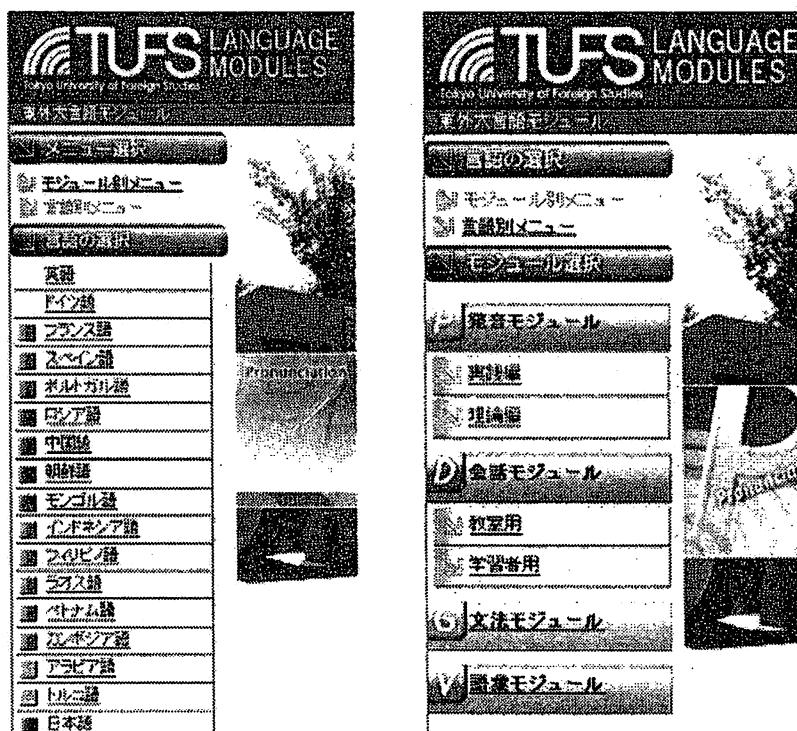
- 11) 가와구치[川口裕司] · 시바노[芝野耕司] · 미네기시[峰岸眞琴](編)(2004) 참조, 재해석하여 적은 것임.
- 12) 일본 문부과학성 『21세기 COE 프로그램』은, 대학에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교육 거점(Center of Excellence)을 학문 분야마다 형성하고, 연구수준의 향상과 세계를 리드하는 창조적인 인재 육성을 지향한다는 취지 아래 일본 문부 과학성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 13) 『TUFS 언어모듈』의 개발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 |
|---------|---------------------------------|
| 2003.6 | IPA 모듈 공개 |
| 2003.9 | 발음 모듈(실전편) 공개 |
| 2003.12 | 회화 모듈(교실용) 공개 회화 모듈(학습자용) 공개 |
| 2004.1 | 다언어판(多言語版) 모듈 공개 |
| 2004.12 | 통언어문법(通言語文法) 모듈 공개 |
| 2005.4 | 문법 모듈 공개 |
| 2006.4 | 발음 모듈(이론편) 공개 |
| 2006.4 | 어휘 모듈 공개 |

각 전공 언어별로 완성 및 공개 시기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어 모듈은 현재 발음 모듈(실전편), 회화 모듈(교실용), 회화 모듈(학습자용), 어휘 모듈(부분적 완성)이 공개되어 있다. 2006년 4월 리뉴얼 작업으로 디자인 등 세부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기본적인 구조에는 변함이 없다.

- (1) 통언어성(通言語性) 및 범용성(汎用性)의 관점에서 다언어 학습 시스템의 공통된 틀의 구축을 시도.
- (2) 『모듈적인 언어관』을 토대로 4가지 부문으로 구성.
(발음 모듈, 회화 모듈, 문법 모듈, 어휘 모듈)
- (3) 언어학, 언어교육학, 정보공학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언어 정보학』을 연구 거점으로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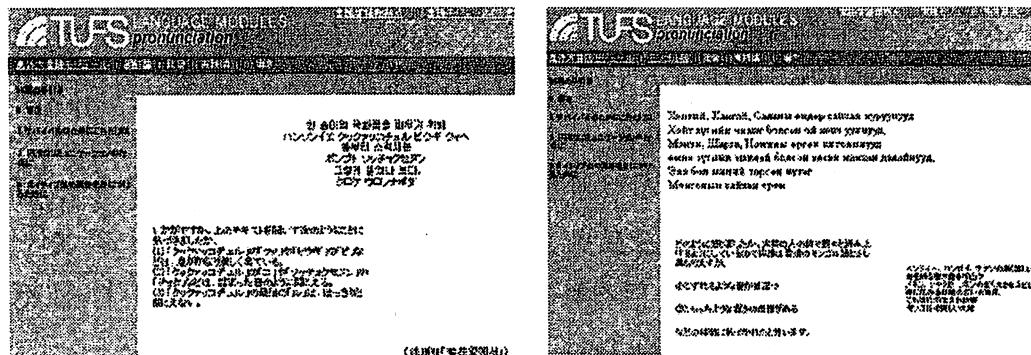
『TUFS 언어모듈』이 철저한 언어 훈련 프로그램을 지향한 다언어 학습 시스템으로 개발된 것은, 동경외국어대학의 각 언어 전공자, 부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수업에서의 활용면도 적극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자신의 모어, 혹은 전공 언어 이외에도 다른 여러 언어에 흥미를 갖고 학습하는 경우가 많은 학생들은, 다언어 학습 시스템 『TUFS 언어모듈』을 통해 다수의 목표 언어들을 대조언어학적 시점에서 학습할 수 있다. 17개 언어의 학습 내용을 공통된 틀로 구축하였으므로 어느 정도 일관된 구조 안에서 각 언어 간의 차이점 혹은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이 용이해질 수 있는 것이다. 웹 상



<그림 1> <언어별 메뉴(좌)>와 <모듈별 메뉴(우)>의 선택

에서도 <언어별 메뉴> 와 <모듈별 메뉴>의 2가지 선택이 가능한데, <모듈별 메뉴>를 선택하면, 발음, 회화, 문법, 어휘 4개의 부문의 각각의 하위 메뉴로서 17개 언어의 학습 내용을 각각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발음 모듈 <실전편>을 보면, 각 언어별 첫 화면인 도입 부분에 공통적으로 각 언어별 詩를 소개하고 발음상의 특징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어도 『국화꽃을』, 『소쩍새』 등을 예로 들며 경음(된소리), 격음(거센소리) 등의 발음상의 주요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¹⁴⁾



<그림 2> 각 언어별 詩를 소개한 발음 모듈 도입 화면 (한국어(좌)와 몽골어(우)의 예)

다언어 학습 시스템 안에서 여러 언어와 나란히 제공되는 한국어는, 단독으로 운영되는 학습 시스템과는 달리, 다양한 학습 동기를 가진 학습자들에게 노출된다. 즉, 목표 언어가 한국어가 아닌 학습 동기를 가진 학습자들에게도 접근성이 용이해짐으로써, 학습자들의 잠재적인 학습 욕구를 유발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TUFS 언어모듈』안에서 한국어 모듈을 체험하게 되는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목표 언어로 찾아온 일본어 모어화자일 수도 있고, 언어별 음성 이미지에 흥미를 가지고 한국어를 접하게 된 미국인 일본어 화자 유학생일 수도 있으며 문법만을 중점적으로 학습하러 온 중국인 일본어 화자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회화 모듈의 공통의 틀인 40가지 기능으로 이루어진 회화문의 내용을 언어별로 비교해 보며 학습하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

14) 현재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가 실려 있다.

이 <금지하기> 기능 표현을 언어별로 비교해 보면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엿볼 수 있다:

<표 2> 각 언어별 <금지하기> 기능의 회화 내용 비교

| 언어 | 회화 장소 | 회화 내용 |
|------|-------|-------------------------|
| 한국어 | 박물관 |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내용 |
| 일본어 | 학교 교정 | 교정에 빈 캔을 버리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
| 프랑스어 | 길 | 길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
| 스페인어 | 전망대 |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내용 |
| 베트남어 | 학교 교실 | 교실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

『TUFS 언어모듈』의 개발 원리의 또 하나의 핵심이 되는 것은 『모듈적인 언어관』이다. 『TUFS 언어모듈』의 17개의 언어모듈의 전체상은 각각 아래와 같이 큰 뼈대가 되는 4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P-모듈 (Pronunciation Module, 발음모듈)
- (2) D-모듈 (Dialogue Module, 회화모듈)
- (3) G-모듈 (Grammar Module, 문법모듈)
- (4) V-모듈 (Vocabulary Module, 어휘모듈)

『모듈적인 언어관』이란, 각각 독립적으로 완결구조를 갖는 부품(Module)적인 존재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완성체를 이룬다는 개념이다. 수십 가지의 부품들을 사용하여 조립하고자 할 때, 지향하는 최종 결과물은 같을지도, 누가, 어떤 부품부터 사용하여 어떤 방식으로 조립하느냐에 따라 각각의 과정은 지극히 개별적이고 창의적인 과정이 된다.

이러한 개발 원리는 학습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율적인 학습 과정을 구성하는 것을 최대한 고려한 것이다. 또한 웹 기반 교재의 하이퍼미디어적인 특성을 극대화하여 단선 구조와 복선구조의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 원리가 된다고도 할 수 있다.

현재 부분적으로 공개된 어휘 모듈을 살펴보면, 제시된 어휘들은 모두 다른 모듈로 링크 처리가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이 <점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예문 뒤에 <회화 모듈>로의 링크 처리를 하여, 클릭하면 즉각

회화 모듈로 옮겨가 <점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회화 장면을 볼 수 있도록 해 놓았다.¹⁵⁾

語彙詳細

[HOME](#) > [基礎語彙の学習](#) > [食生活](#)

[previous](#) [next >](#)
1/2ペー

[文法モジュールへリンク](#) [会話モジュールへリンク](#) [発音モジュールへリンク](#)

점심

(1) **昼御飯**

01. 벌써 점심 시간이에요? [例文](#)
あ、もう昼食の時間ですか？

점심 때 시간 있어요? [例文](#)
お昼に時間がありますか？

<그림 3> 어휘 모듈에서 회화 모듈로의 링크

또한 『TUFS 언어모듈』은 언어학, 언어교육학, 정보공학의 3 부문이 연계한 『언어 정보학』을 연구 거점으로 추진되고 있다. 동경외국어대학의 각 언어 전공 연구자들이 주축이 되어,¹⁶⁾ 수차례의 연구 보고 및 모니터, 회의 등을 통하여 개발의 틀이 마련되었다. 웹상에 구현되기까지의 프로그래밍 및 기술적인 문제도 전문 인력과 각 언어 전공자들과의 협력 체제 아래 진행되었다. 『TUFS 언어모듈』은 개발 단계부터 3단계의 공정을 상정하여 구축되었다. 언어 소재의 작성, 언어 소재의 웹화, 평가 부분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정으로 각각의 개발팀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구축이 완료되어 전체상이 공개된 것은 발음 모듈과 회화 모듈이며 문법 모듈과 어휘 모듈¹⁷⁾은 언어별로 구축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완전한

15) 4개 부문의 개발이 전부 완료된 시점에서는 서로의 링크 체계가 안정되어 각 부문의 연계성이 확실해질 것이다.

16) 전공 교수, 대학원생 등이 개발에 참여하였다. 글쓴이가 주로 참여한 것은 D-모듈의 개발이다.

17) 한국어 어휘 모듈의 일부가 2006년 5월 14일 공개되었다.

모습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은 주로 회화 모듈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발음 모듈¹⁸⁾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기로 하겠다.

3.2 TUFS P-모듈¹⁹⁾

P-모듈은 제 2언어의 음성 습득의 3단계 가설을 바탕으로 단순한 발음에서 복잡한 발음 변화까지 크게 3단계로 구성되었다. 1단계는 기본 자모의 발음을 익히는 것이다. ‘ㄱ’와 ‘ㅋ’의 구별, ‘ㅌ’과 ‘ㄴ’의 구별 등,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일본어 모어 화자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 | |
|------------------|-----------------|
| (1) ㄱ과 ㅋ(단모음 제시) | (6) ㅈ, ㅊ, ㅋ |
| (2) ㅌ과 ㄴ | (7) ㅅ, ㅆ |
| (3) ㅂ, ㅍ, ㅃ | (8) 종성의 ㅂ, ㄷ, ㄱ |
| (4) ㄷ, ㅌ, ㄸ | (9) 종성의 ㅁ, ㄴ, ㅇ |
| (5) ㄱ, ㅋ, ㄲ | (10) 종성의 ㄹ |

2단계는 주로 단어 내부에 일어나는 다양한 발음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 | |
|--------------------|-----------------|
| (1) 어중(語中)에서의 유성음화 | (5) 유음화 |
| (2) 종성의 초성화(初聲化) | (6) 격음화(거센소리되기) |
| (3) 경음화(된소리되기) | (7) 구개음화 |
| (4) 비음화 | |

3단계는 단어와 단어에 걸친 복잡한 발음현상을 다루고 있다:

| | |
|----------------------|--------------------|
| (1) 두 단어에 걸친 유성음화 | (4) 특수한 경음화(된소리되기) |
| (2) 두 단어에 걸친 종성의 초성화 | (5) [n]의 삽입 |
| (3) ㅎ 발음의 약화 | |

18) 발음 모듈 <실전편>을 뜻한다. <이론편>은 현재 프랑스어, 캄보디아어만 공개되어 있다.

19) 이하 발음 모듈을 P-모듈, 회화 모듈을 D-모듈이라 칭하겠다.

또한 P-모듈의 각각의 단원들은 아래와 같은 단계적인 학습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step1 해설 | step2 발음 연습 | step3 듣기 연습문제 | step4 연습문제 해답 확인 |
|---------------------|----------------------------|------------------|--------------------------------|
| 발음에 대한 해설로 지식 습득 | 동영상으로 입모양을 보면서 반복 연습 | 청취하며 연습문제 풀기 | 연습문제 해답 확인 및 발음 재청취, 보충 설명. |

연습문제는 해당 단원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n]의 삽입』에 대한 단원에서는 [n]이 삽입되는 여러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또한 학습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짧은 칼럼도 실려 있다.

1.1 单母音[n]と[ŋ]

재생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A, B 두 단어 중에서 어느쪽 단어를 발음했는지 맞춰 보세요.

再生ボタンをクリックしてください。

A、B、二つの単語のうち、どちらの単語を発音したか当ててみましょう。

問題1 A 소리 (声) B 서리 (霜)

問題2 A 고기 (肉) B 거기 (そこ)

問題3 A 려 (ボール) B 려 (ハチ)

問題4 A 쿠 (所) B 커 (こと)

<그림 4> 1단계 연습문제 ‘느’와 ‘ń’의 구별

3.3 TUFS D-모듈

3.3.1 TUFS D-모듈의 40가지 기능

‘TUFS 언어모듈’의 D-모듈의 회화문 작성의 토대가 된 40가지의 기능 항목은 기능 교수요목²⁰⁾의 관점에서 선정된 것이다. Wilkins(1976)의 기능 항목 및 여러 언어들의 기존 교재들을 분석, 타당성을 검토하여 71개의 기능을 다시 40가지 기능으로 재구성한 것이다.²¹⁾

20) functional syllabus.

<표 3>『TUFS D-모듈』의 40가지 기능

| | | | |
|-----------|--------------------|-----------|----------------|
| 1.인사하기 | 11.정도 묻기 | 21.순서 말하기 | 31.해야 한다고 하기 |
| 2.감사하기 | 12.시간 묻기 | 22.상황 묻기 | 32.금지하기 |
| 3.주의 환기 | 13.숫자 묻기 | 23.조건 달기 | 33.지시하기 |
| 4.자기소개 | 14.수단 묻기 | 24.비교하기 | 34.하지 말라고 하기 |
| 5.사과하기 | 15.능력 묻기 | 25.제안하기 | 35.안 해도 된다고 하기 |
| 6.물건 건네주기 | 16.장소 묻기 | 26.이유 말하기 | 36.초대하기 |
| 7.작별인사 | 17.특징 묻기 | 27.의뢰하기 | 37.조언하기 |
| 8.금액 묻기 | 18.의견 말하기 | 28.예를 들기 | 38.요구하기 |
| 9.경험 묻기 | 19.좋아하는 것에 대해 말하기 | 29.타협하기 | 39.희망사항 말하기 |
| 10.예정 말하기 | 20.좋아하는 행동에 대해 말하기 | 30.허가 구하기 | 40.소개시켜 주기 |

40가지 기능별로 각각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면에 대한 해설을 화면상에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학습 대상이 대학생으로 상정되어 있으므로 학교생활과 관련되는 장면이 비교적 많다. 40가지 회화문은 기능 교수요목의 관점에서 출발하였으나, 내용은 주제, 배경, 문형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하였다.²²⁾

한국어 D-모듈 회화문의 각 표현에는 일본어와의 대조언어학적인 시점을 반영하려 하였다.²³⁾

- (a) 여기요!
- (b) 고맙습니다 – 고맙기는요.

-
- 21) 여러 기능 항목들을 비교하여, 공통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항목을 선정, 공통되지 않은 부분은 비슷한 성질을 갖는 것들끼리 한가지로 묶는 방식으로 개발기간 등도 고려하여 압축시켰다. 가와구치[川口裕司], 시바노[芝野耕司], 미네기시[峰岸眞琴](編)(2004) 참조.
- 22) 원진숙(1992)에서 언급한 소위 통합적 교수요목(integrated syllabus)의 시점이 반영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통합적 교수요목이란, 언어 구조(문법)와 의미와 기능을 유의적 언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결합시킨 교수요목의 모델이라 하였다.
- 23) 제시된 각각의 문장이 나오는 기능 항목은 아래와 같다.
- (a)주의환기, (b)감사하기, (c)물건 건네주기, (d)특징 묻기, (e)순서 말하기, (f)희망사항 말하기, (g)경험 묻기.

(a)는 식당에서 점원을 부르는 표현으로, 같은 장면에서 사용되는 일본어의 직역 표현『미안합니다(스미마센)』와 차이를 갖는 한국어 표현이다. (b)의『고맙기는요』도 기계적인 답례 인사말로 종종 제시하는『천만에요』대신에 한국어의 특징적인 표현을 담으려 하였다. 또한 언어 표현 속에서도 가능한 한 문화적인 측면을 다루도록 하였다:

- (c) 이거요? 이건 한국 탈이에요.
- (d) 그건 된장찌개에요. – 맛은 어때요?
- (e) 지하철 표를 살 때 한국은 일본하고 반대거든요.
- (f) 소나기 같은 단편소설을 좋아해요.
- (g) 한정식을 먹었는데 반찬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3.3.2 TUFS D-모듈 <학습자용>의 4가지 학습 모델

D-모듈은 학습 형태에 따라 크게 <학습자용>과 <교실용>의 2가지 방식으로 구분되어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²⁴⁾『D-모듈』<학습자용>의 가장 큰 특징은 학습 자를 위한 학습 모델이 웹상에 실제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학습 모델은 크게 말하기(speaking)와 쓰기(writing)를 중심으로 각각 듣기 기반(listening based), 읽기 기반(reading based)에 따라 4가지의 유형으로 제시되어 있다.²⁵⁾

<표 4> 학습 원리와 4가지 학습 모델

| | 학습 모델 | 학습 형태 | [입력] ⇒ [출력] ²⁶⁾ |
|---|------------------|--------|----------------------------|
| 1 | Role-play model | 듣고 말하기 | [음성] ⇒ [음성] |
| 2 | Read-aloud model | 읽고 말하기 | [문자] ⇒ [음성] |
| 3 | Dictation model | 듣고 쓰기 | [음성] ⇒ [문자] |
| 4 | Copying model | 읽고 쓰기 | [문자] ⇒ [문자] |

24) <학습자용>은 학습자가 학습 모델을 선택하여 그것에 따라 독자적으로 학습을 전개하는 것을 전제로 구성된 것이다.<교실용>은 교사가 교실에서 프로젝터 등을 사용하여 스크린에 비추면서 수업하는 것을 전제로 구성된 것이다. 수업 중에 학습자가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교사의 설명에 따라 학습하는 형태도 가능하다.

25) 방성원(2000)에서는 통합 교수/교재, 통합 교수법, 통합적 교수요목의 개념을 구분하고, 통합 교수/교재는 듣기-말하기-읽기-쓰기를 통합적으로 교수하는 방식/교재를 일컫는 것이라 했다.

(1) Role-play model (듣고 말하기), Listening & Speaking)

‘동영상을 보며 우선 듣기(일본어 번역 자막만 표시 가능)’에서 시작하여 ‘역할 선택하여 대화 연습하기’까지 단계적으로 학습이 가능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신의 음성 녹음, 재생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확인을 해 볼 수도 있다. 동영상을 보며 실제로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 받는 느낌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2) Read-aloud model (읽고 말하기), Reading & Speaking)

‘문자를 보며 동영상 보기’에서 시작하여 ‘문자를 보면서 읽기’의 단계를 거쳐, ‘문자를 보며 읽어 녹음하기’ 등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말하기’ 학습 모델 프로그램의 구성상의 특징은, 역할 선택 가능, 녹음 및 재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3) Dictation model (듣고 쓰기), Listening & Wri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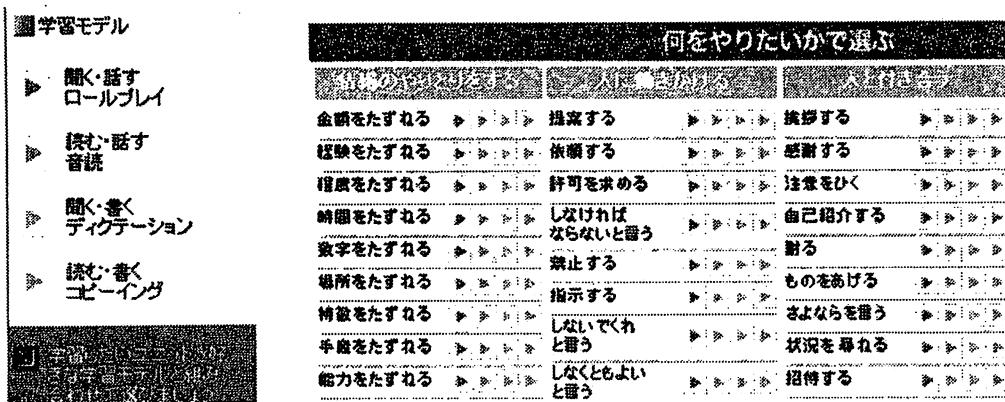
‘동영상을 보며 우선 듣기(문자 표시 없이)’에서 시작하여 ‘음성을 들으며 빈칸 채워 넣기’, ‘음성을 들으며 문장 전체 받아쓰기’ 등 듣고 쓰기 훈련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4) Copying model (읽고 쓰기), Reading & Writing)

우선 ‘눈으로 읽기’에서 시작하여 ‘동영상으로 들어보기’를 거쳐 ‘문자를 보면서 옮겨 쓰기’ 혹은 ‘보지 않고 암기하여 쓰기’ 등 역시 다양한 쓰기 연습이 가능하다.

다음은 4가지 학습 모델이 실제로 웹상에 구현된 모습이다. 40개의 각 기능의 오른쪽에 딸려 있는 4개의 화살표 버튼은 학습 모델의 유형이다:

26) 입력(input), 출력(output)의 개념은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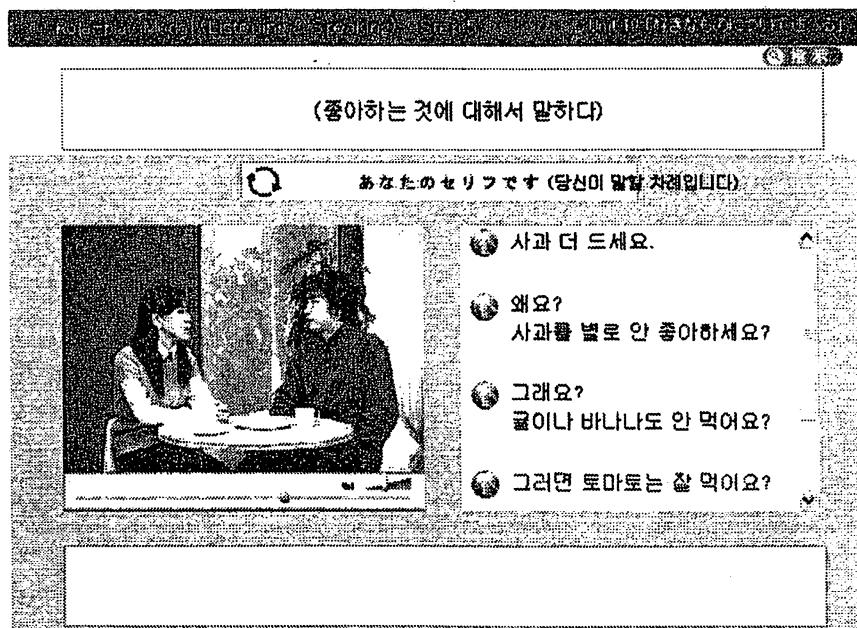
<그림 5> 『D-모듈』<학습자용>의 40가지 기능과 4가지 학습 모델

학습자가 4가지 학습 모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2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5> 학습 모델의 효과적인 활용방법 2가지

| | plan A | plan B |
|----|--------------------------------------|--------------------------------------|
| 방법 | 1개의 학습 모델을 이용하여 40개의 기능을 전부 익힌다. | 1개의 기능을 4개의 학습 모델을 전부 이용하여 익힌다. |
| 예 | <듣고 쓰기> 학습 모델만 활용하여 40개 기능을 전부 연습한다. | <사과하기> 기능만을 선택하여 4가지 학습 모델을 전부 연습한다. |

각각의 학습 모델은, 각각의 학습 유형의 특성에 맞춰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듣기, 읽기로 입력(input)된 학습 내용이 말하기, 쓰기로 출력(output)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각 단계에서는 한 문장씩 끊어서 들려주거나, 한 문장만 들려주고 학습자가 따라할 수 있는 휴지 시간을 주는 등 해당 학습 모델을 선택한 학습자의 욕구에 부응하여 다양한 학습의 전개를 돋는 프로그램이 적절히 제공된다. 학습자는 각 단계에서 제공된 과제를 마치면, 화면의 오른쪽 아래 next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넘어가 새로운 과제를 받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연습문제를 통해 학습자가 어느 정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D-모듈에서는 녹음 및 재생 기능으로 자신의 발음과 모어화자의 발음을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며, 다양한 방식의 쓰기 연습문제와 채점 시스템으로 자기 학습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림 6> Role-play model(듣고 말하기) 학습 화면27)

<그림 7> Listening & Writing(듣고 쓰기) 학습 화면

27) 역할을 지정하면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받는 느낌으로 연습할 수 있다.

3.3.3 TUFS D-모듈 <교실용>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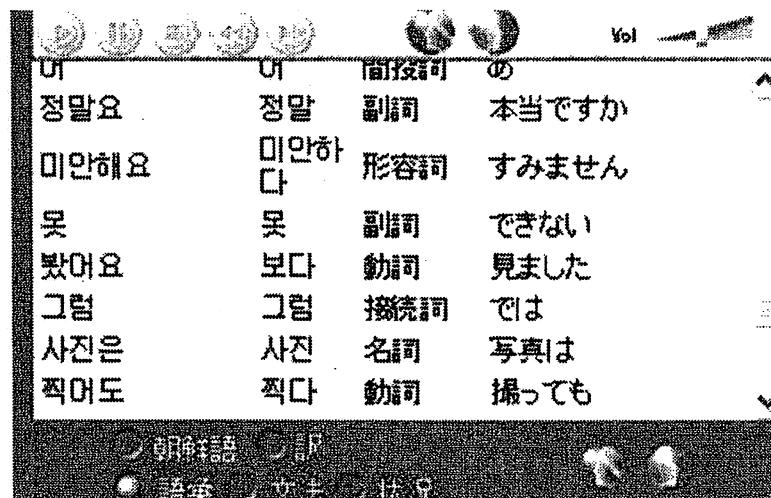
『D-모듈』<교실용>의 특징은 전체 회화문의 정보를 한 페이지에 집약시킨 점이다. 교사가 학습자에게 원하는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학습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한 것이다. <교실용>은 학습자가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교사의 설명에 따라 학습하는 것도 가능하다. 『D-모듈』<교실용>의 학습 화면의 전체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8> 한국어 D-모듈 <교실용> 화면 『금지하기』

학습 화면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A)는 <회화문 영역>으로, 회화문을 표시하는데, 한국어, 일본어 번역문 등 선택이 자유롭다. 또한 문장 단위 혹은 말하는이에 따라 몇 번이고 클릭하여 반복 청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B)는 <정보 영역>으로, 회화 장면에 대한 해설 혹은 동영상의 자막(일본어 혹은 한국어) 표시 기능이 구비되어 있다. 또한 어휘, 문법에 관한 간략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그림 9). (C)는 <멀티미디어 영역>으

로, 동영상의 표시 및 제어 기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말하는 이를 선택하여 들을 수 있다.



<그림 9>『TUFS D-모듈』의 어휘 설명 화면 <B영역(정보 영역)>

D-모듈의 40가지 기능 표현의 회화 장면은 동영상 자료²⁸⁾로 만들어져 제공되고 있다. 실제로 사람이 등장하여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은, 만화나 그림으로 제공되는 평면적인 자료와 차이를 갖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4. 맷음말

본 연구에서는 동경외국어대학에서 개발한 웹 기반 다언어 학습 시스템『TUFS 언어모듈』의 개발의 실제를 바탕으로 그 개발 원리 및 구조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논의한 『TUFS 언어모듈』의 특징을 요약하고 발

28) 동영상 자료는 개발 기간, 개발 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학생 혹은 일반인의 협력을 얻어 만들어졌다. 한국어 모듈의 경우도 서울 방언을 구사하는 한국어 모어화자 대학생의 협력 아래 만들어졌다. 친밀감을 주는 것이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으나 비전문성 및 억양의 부자연스러움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웹 교재의 이점을 살려 부분적인 교체 작업 등 차후 개선책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 방향 및 과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TUFS 언어모듈』이 타 웹 기반 교육 프로그램과 다른 특징적인 점을 들자면, (1)통언어성, 범용성의 관점에서 공통된 틀의 구축을 시도한 다언어 학습 시스템이라는 점, (2)모듈적인 언어관을 토대로 언어의 4부문인 발음, 회화, 문법, 어휘를 각각 독립적으로 완결구조를 갖는 것으로 개발, 또한 그 각각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전체상을 완성하는 것을 지향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점, (3)언어의 4기능을 통합한 학습 모델을 웹 상에 그대로 반영시켜 학습자의 자율적이고도 통제된 학습을 가능하게 한 프로그램이라는 점 등이다.

각각의 특징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우선 구축된 공통의 틀은 학습자에게 대조적 시점을 제공하는 등 지적인 욕구를 유발하는 이점이 있는 반면, 그 공통의 체제 안에서 각각의 언어의 개별성, 즉 한국어 고유성이 얼마나 잘 드러나느냐 하는 것이 또 다른 과제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다. 『TUFS 언어모듈』의 뼈대를 이루는 40가지 기능 중심의 회화문의 작성은 비롯한 각각의 부문들은,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어 이루어진 작업이긴 하나, 각 언어의 결과물의 비교 분석 작업을 통한 재평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²⁹⁾ 아직 개발이 완료된 시점이 아니므로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으나 앞으로의 실제적인 평가 작업은 웹 기반 교재의 특성을 살려 다시 재생산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듈적 언어관을 토대로 한 구성이 과연 하나의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타당한 원리인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것은 개발 완료 시점에서 나머지 문법 모듈, 어휘 모듈이 어떠한 학습 내용으로 완결되며 4개의 각각의 모듈이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느냐에 귀결되는데, 모듈적 구조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완결상을 갖추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부족한 점으로 지적되는 상호작용성에 관한 문제는, 그 보완책으로 현재 『TUFS e-learning system』이라는 로그인 시스템을 개발 중으로 학습자 관리 및 학습 진척도 평가 시스템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학습자의 학

29) 언어모듈을 개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개발 이후에도 사용자 설문 분석 등 각 언어별로 평가작업이 수행되고 있는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coelang.tufts.ac.jp> 참조.

습 진척도를 평가하는 ‘언어능력 평가 모델’의 개발도 고려중인데, 웹 기반 교재의 특성을 살려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Computerized Adaptive Testing)의 형태도 도입할 계획이다.

『TUFS 언어모듈』은 철저한 언어 교육 전문 프로그램을 지향하여 개발된 것으로, 현재 문화면의 자료 제공에는 별로 중점을 두지 않았으나, 언어 습득에의 욕구가 문화적인 측면과 긴밀성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후 보완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앞으로 웹 기반 교재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점점 다양해지는 것을 전체로 한다면, 종합적인 한국학 소개 사이트로서의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철저한 언어 교육 전문 프로그램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개발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을 수도 있다.

다언어 학습 체제라는 공통의 틀 속에 자리매김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도, 하나의 언어모듈로서 그 보편성과 개별성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 작용함으로써 『TUFS 언어모듈』의 전체상에 완결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 언어마다의 꾸준한 평가 작업이 뒷받침되어 『TUFS 언어모듈』 전체 공통의 틀에 대한 끊임없는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³⁰⁾

참고문헌

- 김민성(2001), “과정 중심적 웹 기반 한국어 쓰기 교육: 『hanclass』의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47쪽.
- 김중섭·이관식(199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어교육* 10-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61-81쪽.
- 노마[野間秀樹](1995).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이 어려운가—”, *말글생활* 제3호, 말글社, 160-171쪽.
- 박건숙(2003), “국내 웹 기반의 한국어 교육 사이트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 *한국어교육* 14-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45-167쪽.
- 방성원(2000), “통합 교수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한국어 교육* 11-2, 국제한

30) 투고 과정에서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귀중한 조언을 얻었다. 지면을 빌어 깊이 감사드린다.

- 국어교육학회, 111-131쪽.
- 방성원(2005), “웹 기반 한국어 과정 개발 연구”, 한국어교육 16-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61-184쪽.
- 원진숙(1992), “의사 소통 능력 계발을 위한 교수 요목 설계”, 교육 한글 5, 한글학회.
- 유석훈(2004), “구성주의 다매체 교자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어교육 15-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69-190쪽.
- 이토[伊藤英人](1999),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 방법 –동경외국어대학의 경우–”, 국어교육연구 제6집,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국어교육연구소, 67-87쪽.
- 지현숙·이효정(1999), “인터넷을 이용한 한국어 수업의 실제”, 한국어교육 1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13-324쪽.
- 지현숙(2001), “웹 기반 한국어 교재 개발의 쟁점”, 한국어 교육 1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54-274쪽.
- 최은규·장은아·남수경·채숙희(2006), “초급 학습자를 위한 웹 기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연구”, 한국어 교육 17-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437-457쪽.
- 최정순(1998), “웹 기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실제”, 한국어교육 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39-268쪽.
- 최정순(1999), “새로운 수업도구로서의 컴퓨터(웹)”, 한국어교육 1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25-346쪽.
- 최정순(2003), “교포 청소년을 위한 웹 기반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의 실제”, 조선어연구회 제200회 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조선어연구회, 124-138쪽.
- 가와구치[川口裕司]·시바노[芝野耕司]·미네기시[峰岸眞琴](編)(2004), TUFS言語モジュール, 言語情報學研究報告1, 東京外國語大學大學院地域文化研究科21世紀COEプログラム「言語運用を基盤とする言語情報學據点」
- 요시토미[吉富朝子]·네기시[根岸雅史]·우미노[海野多枝](編)(2004), 第二言語の教育·評価·習得, 言語情報學研究報告5, 東京外國語大學大學院地域文化研究科21世紀COEプログラム「言語運用を基盤とする言語情報學據点」
- 우미노[海野多枝]·요시토미[吉富朝子]·네기시[根岸雅史](編)(2006), 教材開發第·評価·第二言語習得, 言語情報學研究報告10, 東京外國語大學大學院地域文化研究科21世紀COE프로그램「言語運用を基盤とする言語情報學據点」
- Toshihiro Takagaki, Susumu Zaima, Yoichiro Tsuruga, Francisco Moreno-Fernández and Yuji Kawaguchi(2005), *Corpus-Based Approaches to Sentence Structures, Usage-Based Linguistic Informatics 2*, John Benjamins.
- Wilkins, D.A.(1976), *Notional Syllabuses*, Oxford University Press. (시마오카[島岡丘]譯 (1984) 「ノーションナルシラバス –概念を中心とする外國語教授法」桐原書店)
- 동경외국어대학 TUFS 언어모듈 [TUFS LANGUAGE MODULES] 웹 사이트
<http://www.coelang.tufs.ac.jp/modules/index.html>

안은희(安垠姫)

동경외국어대학 지역문화연구과 박사과정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3-11-1, Asahi-cho, Fuchu-shi, Tokyo, Japan

183-8534

전화번호: +81-42-335-6799

전자우편: witheh@hotmail.com

접수일자: 2006. 5. 30

게재결정: 2006. 7. 12

한국어 교육

제17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한국어 교육 제17권 2호

2006년 7월 20일 인쇄

2006년 8월 1일 발행

發行人 조항록

發行處 국제한국어교육학회

制 作 韓國文化社

서울시 성동구 성수 1가2동 656-1683번지

두앤캔B/D 502호

Tel. (02) 464-7708, 3409-4488

Fax. (02) 499-0846

E-mail: hkm77@korea.com

登 錄 제2-1276호

價 格 14,000원

판권 소유: 국제한국어교육학회